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김 희 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탈북 여성 219명과 남한 여성 100명이었다. 공변량분석 결과, 탈북 여성은 남한 여성에 비해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하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많이 하였다. 탈북 여성의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수준 및 양육 행동은 정착 기간에 따라 달랐다. 우울감, 양육 죄책감은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해당하는 탈북 여성이 하나원의 탈북 여성에 비해 높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지역사회에 3년에서 5년 동안 정착한 탈북 여성이 가장 낮았다.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하나원의 탈북 여성이 가장 적게 했다. 탈북 여성은 우울감이 심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많았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하였지만,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남한 여성은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많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많이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탈북 여성에서는 2.3%~36.6%였고, 남한 여성에서는 2.0%~19.0%였으며, 탈북 여성에서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 남한 여성에서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를 둔 탈북 여성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탈북 여성,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 본 연구는 2011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학술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김희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Tel : 061-330-3535, Fax : 061-330-3538, E-mail : kimhk@dsu.ac.kr.

양육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으로서,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반응 양식은 개인이나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일정한 문화 양식의 범주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성격 형성이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혜경, 2002), 온정적이고 아동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또래 유능성이 높다(박주희, 2000). 이에 비해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정서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혜정, 1997).

양육 행동은 부모의 심리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Luster & Okagaki, 1993). 어머니의 우울감과 양육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한 어머니는 비효율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Simon, 1993).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Downey & Coyne, 1990),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더 부정적이며(Biglan, Hops, Sherman, Friedman, Arthur, & Osteen, 1985;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더 적은 반응을 보인다(Cox, Puckering, Pound, & Mills, 1987; Gordon, Burge, Hammen, Adrian, Jaenicke, & Hirroto, 1989). 아동 통제 기술이 손상되며, 자녀 통제나 훈육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처벌이나 학대 혹은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김영희, 장래수, 2004; Conard & Hammen, 1989; Fendrich, Warner, & Weissman, 1990).

부모가 양육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도 양

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양육 행동이 어머니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 행동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발되는 감정을 양육 죄책감(parenting guilt)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일어나기 쉽다(노현정, 2003; 백영숙, 2007). 양육 죄책감은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오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수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기게 하며, 긴장, 후회, 양심의 가책 등을 일으킨다. 죄책감은 이러한 감정을 경감하려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양육 죄책감이 심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과잉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신민호, 1996). 이외는 반대로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자녀를 통제하고, 적대적이며 비합리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장인숙, 2001).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특수 유형으로서, 양육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bidin, 1990).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며(김경희, 1996;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박응임, 1995; 신숙재, 1997; 안지영, 박성연, 2002),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적고(Crinic & Booth, 1991), 강압적인 양육 행동(Murata, 1994)과 비일관적인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을 많이 한다.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가 여성이다(통일부, 2012).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여러 어려움

들 중에서도 자녀 양육 문제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이다.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심하다. 자녀를 데리고 단독으로 탈북하였거나, 탈북 과정, 남한 입국 후에 여러 사정에 의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탈북 여성들은 남편이나 친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다. 탈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녀와 헤어진 후 남한에서 재결합한 여성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의 품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이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한다(조영아, 2012).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남한의 교육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도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조기교육 분위기에 대한 당혹감과 이질감(장혜경, 김영란, 2001),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및 남한의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은 탈북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들은 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조영아, 전우택, 2005). 자녀는 남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고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어머니는 이러한 변화된 행동이나 태도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공감대의 부재, 문화적 괴리감 같은 문제를 겪는다(박미석, 이종남, 1999; 홍은주, 2003).

탈북 여성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남북한 간

의 양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순형 등(1999)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양육 방식과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이나 욕설을 마다하지 않는 비율도 27%에 이르렀다. 이들은 남한의 부모들이 북한의 부모들보다 자녀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욕설을 하지 않는 등 곱게 키우지만, 과잉보호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응답했다.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에는 없는 왕따 현상이나 개방적인 성문화, 교사에 대한 부모와 아이들의 태도가 낮설고, 자녀의 안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자녀가 자라면서 그러한 문화를 흡수할까봐 불안감을 느낀다. 북한은 유치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 과정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한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배움을 지도해야 하며, 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미정, 정계숙, 2007). 이들은 자녀에 대한 강압적 태도, 심한 훈육 등과 같은 양육 행동에 대해 남한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한다.

탈북 여성의 자녀 양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이 양육 환경의 변화와 남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양육 기술, 그리고 남북한의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탈북 여성이 느끼는 양육 죄책감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남한 부모와 탈

북 여성 간에 자녀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탈북 여성이 남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 지각한 내용을 기초로 양육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한 부모와 탈북 여성의 자녀 양육 방식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 여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몸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남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방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김미정, 정계숙, 2007). 이는 탈북 여성의 양육 방식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기간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이 흔히 겪는 정신 장애로서, 이들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에서도 우울 문제는 이들의 주요 정신건강 예측치 중 하나이다. 하나원 교육생의 29% 이상이 우울 증상군에 해당되었으며(한인영, 2001), 여성의 27.4%가 우울과 불안, 사회적 회피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였다(김희경, 오수성, 2010).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훨씬 더 높아서 51.5%~54.7%가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엄태완, 2004;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김희경, 신현균, 2010). 양육 행동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어머니의 우울감이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탈북 여성에서도

그러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 여성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양육 문제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들의 양육 행동을 남한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탈북 여성의 양육 문제를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신념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 여성의 남한 사회 정착 기간에 따라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 총 319명이었다. 탈북 여성은 하나원 교육생 124명, 지역사회 거주자 95명이었으며, 남한 여성은 100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하나원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하나원의 탈북 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연구 대상			F(2, 316)	$\chi^2(2, 319)$
	하나원 탈북 여성 (n=124)	지역사회 탈북 여성 (n=95)	남한 여성 (n=100)		
연령(세) ^a	35.26(6.68)	40.39(5.59)	36.20(4.90)	22.36 ^{***}	
배우자 연령(세) ^a	39.61(6.21)	42.88(6.34)	38.61(5.32)	13.65 ^{***}	
교육수준 ^b					
고졸 이하	1(0.8)	0(0.0)	0(0.0)		
고졸	103(83.1)	83(87.4)	16(16.0)		144.32 ^{***}
고졸 이상	20(16.1)	12(12.6)	84(84.0)		
배우자 교육수준 ^b					
고졸 이하	3(2.4)	0(0.0)	0(0.0)		
고졸	111(89.5)	77(81.1)	16(16.0)		158.67 ^{***}
고졸 이상	10(8.1)	18(18.9)	84(84.0)		
배우자 ^b					
유	87(70.2)	43(45.3)	95(95.0)		57.60 ^{***}
무	37(29.8)	52(54.7)	5(5.0)		
직업 ^b					
유	0(0.0)	27(28.7)	60(60.0)		100.42 ^{***}
무	124(100.0)	67(71.3)	40(40.0)		
월평균소득(만원) ^a	-	164.72(99.39)	395.05(158.79)	398.97 ^{***}	
자녀수(명) ^a	1.12(0.35)	1.35(.56)	1.87(.60)	62.85 ^{***}	
자녀 평균 연령(세) ^a	6.67(4.12)	9.26(4.43)	7.60(3.15)	11.65 ^{***}	

주. ^a평균(표준편차), ^b빈도(퍼센트). 교육수준의 df=4임.

*** p<.001.

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5.3세(SD=6.68)였으며, 고등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 수준) 졸업자가 83.1%(10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정착 기간은 12개월부터 147개월(SD=37.7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4세(SD=5.59)였고,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87.4%(83명)였다. 남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6.2세(SD=4.90)였으며, 대졸 이상이 84%(84명)를 차지했다.

세 집단은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탈북 여

성의 연령($F(2, 316)=22.36, p<.001$)과 그 배우자의 연령($F(2, 316)=13.65, p<.001$)이 가장 많았다. 남한 여성의 교육 수준($\chi^2(4, 319)=144.32, p<.001$)과 그 배우자의 교육 수준($\chi^2(4, 319)=158.67, p<.001$)이 탈북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chi^2(2, 319)=57.60, p<.001$)과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chi^2(2, 319)=100.42, p<.001$)도 남한 여성이 많았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하나원의 탈북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에 비해 남한 여성들의 소득이 약 두 배 이상 많았다($F(2, 316)=398.97, p<.001$). 자녀수는 남한 여성이 많았으며($F(2, 316)=62.85, p<.001$), 자녀의 평균 연령은 지역사회 거주 탈북 여성이 가장 높았다($F(2, 316)=11.65, p<.001$).

도구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제작하고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 for 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20문항이며, 지난 1주일 동안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4점 척도(0점~3점)로 평정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역학 연구에서는 21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군으로 분류한다(조맹제, 김계희, 1993).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2008)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3이었다.

양육 죄책감

양육 죄책감은 장인숙(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6문항, 돌봄에 대한 죄책감 6문항,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 5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와 타인 양육에서 오는 심리적 죄책감을 말한다. 돌봄에 대한 죄책감은 질적 양육에 대한 죄책감, 신경질이나 화풀이에 대한 죄책감,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은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말한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5점)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대한 죄책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백영숙(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 는 .91이었고, 각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도 .80~.88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이었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65, 돌봄에 대한 죄책감 .77,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은 .80이었다.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하고 김현미(2004)가 번안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 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고통은 부모 개인의 적응 문제로 인해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부모-자녀 간의 기대 불일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행동 문제를 자녀가 갖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영역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5점)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현미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 는 .81~.88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3이었고, 부모의 고통은 .85,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92,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77이었다.

양육 행동

양육 행동은 박주희(2000)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네 가지로 측정한다. ‘온정-격려’ 양육 행동은 11문항이며, 아이에 대한 수용, 애정 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의 긍정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설정’ 양육 행동은 8문항으로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행동하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 행동을 나타낸다.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은 7문항이며, 아이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 행동을 말한다. ‘거부-방임’ 양육 행동은 8문항이고, 아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행동,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로 평정한다. 박주희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 는 .63~.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 는 ‘온정-격려’ 양육 행동은 .93, ‘한계 설정’ 양육 행동 .82,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 .65, ‘거부-방임’ 양육 행동은 .72였다.

절차 및 자료 분석

하나원 탈북 여성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입소하는 탈북 여성들 중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한 탈북 여성들만 선별하였으며,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한 직후에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탈북 여성들 중에서 조사원을 선정하여 검사 실시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지 1년 이상 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 내용에는 검사의 목적, 실시 절차,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남한 여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방과 후 학습도우미 등으로부터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은 후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실시하였다. 세 집단 모두에게 조사 참여에 대해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였다.

총 330부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1부를 제외하고 3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 간에 연구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처리한 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탈북 여성

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탈북 여성의 남한 사회 정착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착 기간을 1년에서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비교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탈북 여성은 정착 기간에 따른 차이를 1단계로 투입하여 통제하였고, 2단계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울감

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이 변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남한 여성은 1단계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투입하였고,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결 과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차이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

표 2.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차이(ANCOVA)

연구 변인	집단		F
	탈북 여성 (n=219)	남한 여성 (n=100)	
우울감	.94(.56)	.72(.41)	4.20***
양육 죄책감	3.06(.75)	2.91(.57)	2.68**
타인 양육	2.94(.76)	2.71(.65)	2.38*
돌봄	3.11(.87)	3.13(.66)	2.06*
부모 역할	3.15(.95)	2.90(.64)	2.53*
양육 스트레스	2.84(.61)	2.41(.37)	6.80***
부모의 고통	2.87(.71)	2.71(.54)	1.42
역기능적 상호작용	2.73(.84)	1.99(.48)	10.19***
자녀 기질	2.90(.57)	2.55(.36)	6.91***
양육 행동			
온정-격려	3.35(.83)	3.65(.41)	4.21***
한계설정	3.21(.72)	3.44(.40)	2.54**
과보호-허용	2.93(.57)	2.43(.44)	10.36***
거부-방임	2.87(.59)	2.68(.40)	1.77

* $p < .05$, ** $p < .01$, *** $p < .001$.

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통제 한 후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은 부모의 고통, 거부-방임 양육 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탈북 여성의 우울 수준이 남한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도 더 많았다. 긍정적인 양육 행동인 온정-격려, 한계설정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이 탈북 여성에 비해 더 많이 하였으며,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은 탈북 여성이 남한 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우울감의 경우, CES-D

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사회 역학용 절단점인 21점 이상을 보인 비율은 탈북 여성이 41.6%(91명), 남한 여성이 18%(18명)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 319)=16.93, p < .001$).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른 차이

남한 사회 정착 기간에 따라 연구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을 세 수준으로 구분한 후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비교한 공변량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양

표 3.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른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차이(ANCOVA)

연구 변인	정착 기간				F	사후비교
	하나원 ¹ (n=124)	1년~3년 ² (n=24)	3년~5년 ³ (n=29)	5년 이상 ⁴ (n=42)		
우울감	.78(.52)	1.23(.62)	1.02(.44)	1.17(.54)	4.92***	2, 3, 4>1
양육 죄책감	2.95(.77)	3.34(.76)	3.14(.61)	3.18(.71)	2.30*	2>1
타인 양육	2.88(.73)	3.06(.83)	2.97(.83)	3.00(.75)	1.33	
돌봄	2.96(.96)	3.49(.77)	3.21(.59)	3.23(.72)	2.03*	2>1
부모 역할	3.00(1.03)	3.48(.90)	3.27(.68)	3.32(.80)	2.11*	2>1
양육 스트레스	2.93(.62)	2.98(.70)	2.52(.48)	2.69(.50)	2.57**	1, 2>3
부모의 고통	2.86(.67)	3.22(.84)	2.61(.69)	2.87(.69)	1.68	
역기능적 상호작용	2.92(.88)	2.83(.86)	2.23(.61)	2.46(.64)	3.11**	1>3, 4, 2>3
자녀 기질	3.01(.60)	2.90(.59)	2.70(.55)	2.74(.42)	2.59**	1>3
양육행동						
온정-격려	3.15(.86)	3.77(.81)	3.62(.70)	3.48(.68)	3.27***	2, 3>1
한계설정	3.12(.74)	3.49(.66)	3.38(.74)	3.20(.67)	1.76	2>1
과보호-허용	2.99(.51)	2.82(.66)	2.81(.66)	2.90(.63)	1.72	
거부-방임	2.93(.57)	2.87(.73)	2.67(.67)	2.86(.50)	.95	

* $p < .05$, ** $p < .01$, *** $p < .001$.

육 행동에서 정착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은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정착한 탈북 여성들이 하나원의 탈북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양육 죄책감은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3년인 탈북 여성들이 하나원의 탈북 여성에 비해 높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지역사회에 1년~3년 정착한 탈북 여성들이 3년~5년 정착한 탈북 여성들에 비해 높았다. 온정-격려 양육 행

동은 하나원의 탈북 여성이 지역사회 1년~3년, 3년~5년 정착한 탈북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 한계설정 양육 행동은 하나원의 탈북 여성이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3년인 탈북 여성들에 비해 적었다.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등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들은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은 남한 여성을 기준으로 탈북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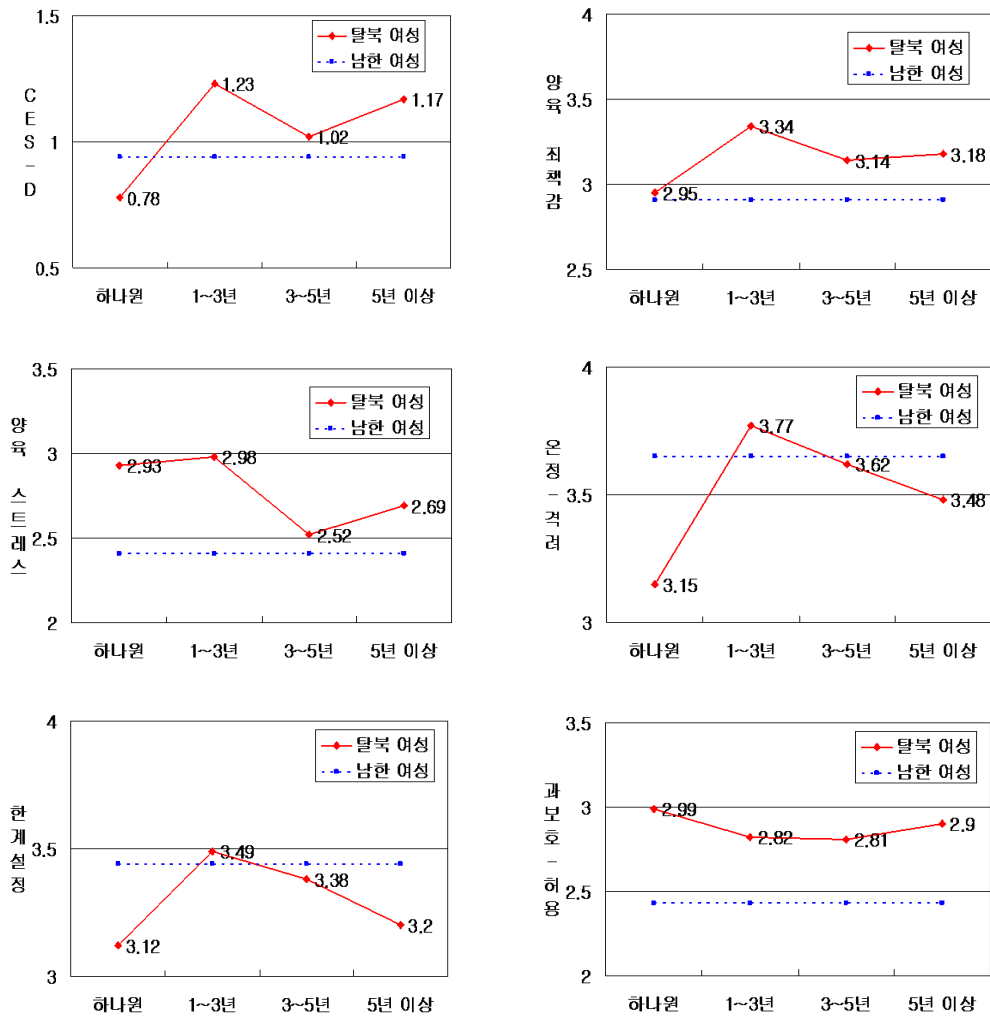


그림 1. 남한 여성 대비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별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의 정착 기간에 따른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은 지역사회에 1년~3년 거주한 탈북 여성들이 남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각각 $F(4, 314)=5.75, p<.001$; $F(4, 314)=2.45, p<.01$.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원과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3년인 탈북 여성들이 남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4, 314)=6.64, p<.001$). 온정-격려 양육 행동은 하나원의 탈북 여성이 남한 여성이나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정착한 탈북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F(4, 314)=4.65, p<.001$).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에 비해 하나원이나 지역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이 많았다($F(4, 314)=7.53, p<.001$). 한계설정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과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4, 314)=2.58, ns$).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의 관련성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에서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탈북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으며($r(219)=.19, p<.001$), 온정-격려 양육 행동($r(219)=-.21, p<.001$)과 한계설정 양육 행동($r(219)=-.13, p<.05$)을 적게 하였다. 양육 죄책감은 온정-격려($r(219)=.46, p<.001$) 및 한계설정($r(219)=.40, p<.001$) 양육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부정적인 양육 행동들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온정-격려($r(219)=-.40, p<.001$) 및 한계설정 양육 행동($r(219)=-.28,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과보호-허용($r(219)=.15, p<.05$) 및 거부-방임 양육 행동($r(219)=.38,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하면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여성의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r(100)=.38, p<.001$), 양육 스트레스($r(100)=.51, p<.001$) 간에는 뚜렷한 정적 상관이 있어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죄책감이 심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우울감이 심할수록 온정-격려 양육 행동은 적게 하였고($r(100)=-.24, p<.05$), 거부-방임 양육 행동은 많이 하였다($r(100)=.33, p<.001$).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으며($r(100)=.50, p<.001$), 과보호나 허용적인 양육 행동($r(100)=.28, p<.01$)을 많이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양육 행동들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부-방임 양육 행동과는 뚜렷한 정적 상관($r(100)=.40, p<.001$)을 보여서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유형의 양육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

표 4. 탈북 여성에서 연구변인들 간 상관(N=219)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04																				
3	.77***	-.00																			
4	.02	.15*	-.07																		
5	.19**	.12	.14	.42***																	
6	.18*	-.09	.12	.05	.22***																
7	.98***	.13	.43***	.09	.16*	.18**															
8	.32***	.03	.18**	.25***	.71***	.28***	.21***														
9	.18*	-.14*	.14*	-.12	.18*	.07	.01	.22**													
10	-.02	-.07	-.13	.00	.17***	.08	.07	.13	.11												
11	-.09	-.07	-.13	-.03	.10	.05	.03	.06	.21***	.76***											
12	-.00	-.06	-.10	.02	.17*	.06	.08	.13	.04	.93***	.50**										
13	-.09	-.06	-.12	.01	.16*	.10	.07	.14	.04	.93***	.52***	.89***									
14	.15*	.00	-.05	-.10	-.12	.03	-.05	-.20**	.19***	.10	.33***	-.05	.01								
15	-.07	-.07	-.01	-.02	.00	.10	.03	-.04	.22**	.25**	.38**	.13	.16*	.84***							
16	-.13	.02	-.05	-.15*	-.19**	.03	-.07	-.25***	.21**	-.05	.27***	-.20**	-.16*	.91***	.64***						
17	-.20**	.07	-.05	-.08	-.12	-.06	-.08	-.21**	.04	.08	.19*	-.09	.05	.80**	.50**	.63**					
18	.01	-.09	-.10	.15*	.23***	.01	.04	.20**	-.21**	.46***	.15*	.51***	-.40**	-.17*	-.55***	.26***					
19	-.00	-.07	-.12	.09	.07	.04	.04	.09	-.13*	.40***	.21**	.40***	-.28**	-.19*	-.35***	.15*	.74***				
20	-.15**	-.08	-.19**	.07	-.11	.02	-.17*	-.08	-.04	.09	.14*	-.04	-.00	.15*	.14*	.17*	.05	.20**	.25**		
21	.08	.04	.07	-.11	-.14*	.03	-.08	.09	.09	.16*	.14*	.12	.17*	.38***	.34**	.30**	.35***	-.05	.18**	.28**	

주: 1: 연령, 2: 학력, 3: 배우자 연령, 4: 배우자 학력, 5: 소극수준, 6: 자녀수, 7: 자녀 연령, 8: 경력기간, 9: 우울감, 10: 양육 피로감, 11: 타인 양육에 대한 피로감, 12: 돌봄에 대한 피로감, 13: 부모 역할에 대한 피로감, 14: 양육 스트레스, 15: 부모의 고령, 16: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7: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18: 온정적 리더, 19: 한계설정, 20: 과보호-리용, 21: 거부-방임.
* p<.05, ** p<.01, *** p<.001.

표 5. 남한 여성에서 연구변인들 간 상관(N=10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1: 연령, 2: 학력, 3: 배우자 연령, 4: 배우자 학력, 5: 소득수준, 6: 자녀수, 7: 자녀 연령, 8: 우울감, 9: 양극 죄책감, 10: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11: 돌봄에 대한 죄책감, 12: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 13: 양육 스트레스, 14: 부모의 고통, 15: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6: 자녀의 카타르시스 기원, 17: 온정-격려, 18: 한계 설정, 19: 과보호-허용, 20: 거부-참임.
 * p<.05, ** p<.01, *** p<.001.

표 6. 탈북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	단계	예측변인	β	t	R^2	ΔR^2	F	
온정-격려	1	정착기간	.01	.13	.038	-	8.65**	
		연령	.02	.17				
		학력	-.04	-.83				
	2	배우자 연령	-.05	-.59				
		배우자 학력	.05	.84	.108	.069	2.80**	
		소득수준	.13	1.64				
		배우자 유무	-.06	-1.06				
		자녀수	-.03	.59				
	3	자녀 연령	-.02	-.36				
		우울감	-.21	-3.66***	.169	.062	4.24**	
		양육 죄책감	.50	9.24***	.356	.186	10.38***	
		양육 스트레스	-.38	-6.80***	.474	.118	15.45***	
		정착기간	-.02	-.22	.003	-	8.65**	
	한계설정	1	연령	.05	.47			
			학력	-.05	-.88			
배우자 연령			-.11	-1.13				
2		배우자 학력	-.00	-.05	.065	.057	2.80**	
		소득수준	.02	.26				
		배우자 유무	-.08	-1.30				
		자녀수	.02	.33				
		자녀 연령	.01	.09				
3		우울감	-.12	-1.89	.044	.023	1.71	
		양육 죄책감	.42	6.74***	.183	.136	1.61	
		양육 스트레스	-.28	-4.36***	.249	.066	7.01***	
		정착기간	.04	.41	.002	-	1.38	
		과보호-허용	1	연령	.11	.89		
학력				-.07	-.97			
배우자 연령				-.18	-1.65			
2	배우자 학력		.13	1.68	.072	.066	1.81	
	소득수준		-.14	-1.35				
	배우자 유무		-.02	-.28				
	자녀수		.05	.73				
	자녀 연령		-.15	-1.70				
3	우울감		-.05	-.63	.072	.000	1.62	
	양육 죄책감		.02	.28	.073	.001	1.49	
	양육 스트레스		.16	2.24*	.095	.022	1.81*	
	정착기간		.06	.65	.009	-	1.99	
	거부-방임		1	연령	.06	.48		
학력				.09	1.42			
배우자 연령				-.03	-.33			
2		배우자 학력	-.03	-.37	.038	.029	.93	
		소득수준	.17	-1.66				
		배우자 유무	-.06	-.81				
		자녀수	.05	.72				
		자녀 연령	-.11	-1.32				
3		우울감	.03	.45	.055	.016	1.20	
		양육 죄책감	.15	2.28*	.087	.033	1.80	
		양육 스트레스	.36	5.22***	.194	.107	4.13***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	단계	예측변인	β	t	R^2	ΔR^2	F
온정-격려	1	연령	-.18	-.82	.110	-	1.41
		학력	.18	1.52			
		배우자 연령	.10	.47			
		배우자 학력	-.11	-.93			
		소득수준	.19	1.58			
		배우자 유무	.05	.49			
		자녀수	.01	.07			
	자녀 연령	-.25	-1.93				
	2	우울감	-.12	-.98	.163	.053	1.95
	3	양육 죄책감	-.16	-1.32	.196	.033	2.17*
	4	양육 스트레스	-.15	-1.13	.207	.012	2.09*
	한계설정	1	연령	-.10	-.45	.123	-
학력			.25	2.14*			
배우자 연령			.15	.65			
배우자 학력			-.26	-2.24*			
소득수준			-.11	.95			
배우자 유무			.13	1.15			
자녀수			.20	1.82			
자녀 연령		.23	1.79				
2		우울감	.14	1.13	.203	.009	2.55*
3		양육 죄책감	-.13	-1.11	.215	.011	2.43*
4		양육 스트레스	.02	.17	.215	.000	2.19*
과보호-허용		1	연령	.30	1.41	.187	-
	학력		-.04	-.38			
	배우자 연령		-.37	-1.72			
	배우자 학력		-.00	-.04			
	소득수준		.11	-.95			
	배우자 유무		.15	1.39			
	자녀수		-.29	-2.68**			
	자녀 연령	.01	.10				
	2	우울감	-.22	-1.87	.193	.006	2.40*
	3	양육 죄책감	.20	1.72	.238	.045	2.79**
	4	양육 스트레스	.13	1.02	.247	.009	2.63**
	거부-방임	1	연령	.30	1.40	.050	-
학력			-.08	-.74			
배우자 연령			-.08	-.37			
배우자 학력			.03	.24			
소득수준			-.04	-.34			
배우자 유무			.12	1.10			
자녀수			-.00	-.01			
자녀 연령		-.04	-.30				
2		우울감	.16	1.41	.155	.104	1.83
3		양육 죄책감	-.09	-.75	.157	.002	1.66
4		양육 스트레스	.40	3.12**	.241	.084	2.53**

* $p < .05$, ** $p < .01$, *** $p < .001$.

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확인한 결과, 탈북 여성들은 1.11에서 3.42, 남한 여성은 1.31에서 5.33으로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 정착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정착 기간과 탈북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온정-격려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3.8%와 6.9%였으며, 우울감은 6.2%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고, 양육 죄책감이 18.6%, 양육 스트레스가 11.8%의 설명력을 더하여 총 47.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계설정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각각 13.6%와 6.6%의 설명력을 보였다.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9.5%로 낮았다. 거부-방임 양육 행동에 대한 양육 죄책감의 설명력은 3.3%였고, 양육 스트레스가 10.7%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다.

남한 여성의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온정-격려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0.7%였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각각의 고유한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계설정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1.5%로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학력($\beta=.25, p<.05$)과 배우자의 학력($\beta=.26, p<.05$)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우울감,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의 추가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4.7%였으며,

자녀수($\beta=-.29, p<.01$)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거부-방임 양육 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은 24.1%였고, 양육 스트레스($\beta=.40, p<.01$)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탈북 여성은 남한 여성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으며,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도 많았다. 또한 긍정적인 양육 행동인 온정과 격려, 한계설정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에 비해 적게 하는 반면, 아이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이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과보호와 허용 양육 행동은 더 많이 하였다.

하지만, 탈북 여성의 남한 사회 정착 기간에 따른 비교 결과,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이나 양육 문제 차이는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울감의 경우, 남한 사회에 경험이 없는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에서 3년인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컸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적어지다가 5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서는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이 남한 주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 연구(엄태완, 2004)와 유사하며,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간의 우울감 차이는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보다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김희경, 신현균, 2010)를 지지해준다.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조영아 등, 2005;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와 유사한데, 정착 1년에서 3년 동안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다가 3년부터 7년 사이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이 1년 시점에서의 우울 수준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다시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노대균, 2001; 엄태완, 2004)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간과 우울감의 관계가 연구들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이유는 정착 기간 구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나 조영아 등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동안의 우울감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정착 기간을 세분화하여 종단적으로 추적 연구한다면 그 양상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성의 정착 기간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 양상은 이주민의 타 문화에 적응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 Furnham와 Bochner(1986)의 문화충격 이론에 따르면, 타 문화로 이주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착을 기쁘게 여기지만 현실에 직면하고 난 다음에는 실망감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 즉, 타 문화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적응 패턴이 정착 기간과 비례하기 보다는 U자형이나 W자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 이주 초기에는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과 관심, 경제적 지원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을 적게 드러내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심리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본 구성 및 정착 기간의 분류에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탈북 여성의 우울감도 대체로 3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 같고, 이주민의 문화 적응 양상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니고 정착 기간에 따른 탈북 여성의 표본수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북 여성의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정착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양육 죄책감 수준은 비슷했지만, 지역사회에 1년에서 3년 동안 거주한 탈북 여성들은 남한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원의 탈북 여성과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속하는 집단이 남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3년에서 5년, 5년 이상 거주한 탈북 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정착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양육 죄책감이 부모 역할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것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개인의 고통이나 자녀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 죄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 높은 것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이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각할 때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육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원과 지역사회는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나원의 경우, 탈북 여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과 자녀 교육의 상당 부분을 하나원이 수행한다. 영유아는 하나원의 시설에서 보모들이 관리하며, 초등학생은 인근에 위치한 남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중고등학생 역시 하나원에서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며, 병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도 이루어진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식비,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유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에 속하는 탈북 여성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업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해야 하고, 남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도 느끼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탈북 여성의 양육 죄책감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편입된 후 실제 남한 생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사입국에 대한 안도감과 만족감, 그리고 미래 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으로 인해 부담감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와 접촉을 시작한 이후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노대균, 2001).

양육 죄책감과 달리, 탈북 여성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은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문제나 브로커 비용 문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재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재결합 문제(조영아, 전우택, 2005), 자녀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조영아, 2012) 등의 내적, 현실적 갈등들이 자녀에 대한 지각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양육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는 하나원의 탈북 여성이나 3년 미만의 탈북 여성들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도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탈북 여성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안정성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재결합 시기 및 기간 등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착 기간에 따른 양육 행동의 차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온정-격려 양육 행동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하나원의 탈북 여성들에 비해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온정-격려 양육 행동이 뚜렷하게 높았고, 남한 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기존의 양육 방식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다. 온정-격려 양육 행동은 자녀에 대한 수용과 애정 표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을 의미한다. 남한 사회에 살다가 북한의 자녀와 재결합한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눈높이를 자녀와 맞추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며,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연구 결과(조영아, 2012)나 남한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하는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점(김미정, 정계숙, 2007)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온정-격려 양육 행동이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의 일부이거나 보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남한 여성은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온정이나 격려,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하면서 과보호나 허용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많이 하였다. 그에 비해 탈북 여성은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온정이나 격려,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 죄책감이 심한 탈북 여성들이 부정적인 양육 행동보다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실제로 더 많이 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온정이나 격려, 한계설정 외에도 과보호나 허용, 거부 및 방임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은 거부 및 방임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착 기간에 상관없이 탈북 여성의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이 남한 여성에 비해 모두 높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장인숙, 2001)와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서, 양육 죄책감이 높은 탈북 여성들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 뿐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 행동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 여성들이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허용적인 태도로 양육 죄책감을 보상하려는 것(신민호, 1996)과는 달리, 탈북 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과보호나 허용

적인 양육 행동으로 보상하려고 함과 동시에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후자의 태도가 보상 행위의 일부분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태도는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이 비일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일관적인 훈육 태도나 보상 행위는 탈북 여성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에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은 남한 여성과는 달리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 여성은 우울감이 심할수록 거부-방임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들(김영희, 장래수, 2004; Conard & Hammen, 1989; Fendrich et al., 1990)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양육 죄책감이 심할수록 과보호-허용 양육 행동을 많이 하고,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거부-방임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김경희, 1996; 김미숙, 2005; 박성연 등, 1996; 박응임, 1995; 안지영, 박성연, 2002; 정문자, 신숙재, 1998; Crinic & Booth, 1991; Murata, 1994; Lempers et al., 1989)을 지지해주었다. 하지만, 탈북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나 양육 죄책감과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한 여성에서는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정적 상관이 뚜렷했던 반면, 탈북 여성에서는 상관이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 여성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거부-방임 양육

행동에 8.4%의 영향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양육 행동들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고, 양육 죄책감이 긍정적인 양육 행동과 부정적인 양육 행동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탈북 여성에서는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온정-격려 양육 행동에 39.4%, 한계설정 양육 행동에는 20.2%, 거부-방임 양육 행동에도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우울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탈북 여성이나 남한 여성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고, 탈북 여성의 온정-격려 양육 행동에만 6.2%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은 우울감보다는 양육 죄책감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남한 여성에서는 우울감이나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약하여서 그러한 요인들이 곧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이들의 양육 문제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상담할 때에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 뿐 아니라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탈북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자녀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밝혀진 북한이탈주민의 양육 문제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의 우울감과 양육 죄책감, 양육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양육 행동에서의 차이를 남한 여성과

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정착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한 여성과는 달리, 탈북 여성의 양육 행동은 양육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양육 죄책감이 심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과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모두 보이는 비일관적인 양육으로 인해 탈북 여성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탈북 여성의 양육 죄책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양육 행동과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 남북한의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부모-자녀 간 대화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탈북 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초기 3년 동안에 양육 죄책감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탈북 여성의 우울감과 양육 문제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우울감은 남한 사회 정착 기간에 따라 변하며(조영아 등, 2005), 가족이 지니는 지지체계로서의 중요성은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조영아 등, 2009). 추후 탈북 여성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 행동의 관련성 및 가족의 기능 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변화 양상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의 크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탈북 여성으로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좀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착 단계도 세분화하여 비교한다면 탈북 여성의 양육 문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권위, 통제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3), 19-26.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88.
- 김영희, 장래수 (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놀이치료연구, 8(1), 117-139.
-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사검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41-61.
- 김현미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6.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현정 (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3-74.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의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용임 (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2.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호 (1996). 유아모의 전공 및 직업 유무와 양육태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1999). 북한의 아동 양육실태 및 관련 변수. 아동학회지, 20(4), 43-59.
- 장인숙 (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

- 향: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김영란 (2001).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7-445.
- 정문자, 신숙재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홍은주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 (1997).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 한국교육심리학회, 11(3), 331-350.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iglan, A., Hops, H., Sherman, L., Friedman, L. S., Arthur, J., & Osteen, V. (1985). Problem-solving interactions of depressed woman and their husbands. *Behavior Therapy*, 16(5), 431-451.
- Conard, M., & Hammen, C. (1989).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 perceptions of child mal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663-667.
- Cox, A. D., Puckering, C., Pound, A., & Mills, M. (1987).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6), 917-928.
- Crit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42-1050.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Fendrich, M., Warner, V.,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40-50.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7-14.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 to unfamiliar environment*. New York: Methuen.
- Gordon, D., Burge, D., Hammen, C., Adrian, C., Jaenicke, C., & Hirroto, D. (1989). Observations of interactions of depressed women with thei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6(1), 50-55.
- Hinton, W. L., Tiet, Q., Tran, C. G.,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 Lempers, J. D., Clark-Lempers, D. C.,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Erlbaum.
- Murata, J. (1994). Family stress, social support, violence and son's behavio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2), 154-16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imon, R. W. (1993). Parenting role strains, salience of parental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 on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25-35.

1 차원고접수 : 2012. 10. 01.
심사통과접수 : 2012. 11. 29.
최종원고접수 : 2012. 12. 13.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depressed mood,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s in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nd South Korean Women

Hee Ky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influence of depressed mood and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s between North Korean Women Refugees(219) and South Korean Women(100). ANCOVA showed that North Korean Women Refugees had higher depressed mood, parenting guilt,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than South Korean Women. Depressed mood, parenting guil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differed on their settlement period. The group settled in community from one to three years showed more depressed mood and parenting guilt than the group educated in Hanawon(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group of settlement period from three to five years had the lowest scores on parenting stress among refugees. Hanawon group had the lowest scores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 North Korean Women Refugees, depressed mood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but with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oo. In South Korean Women, depressed moo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guilt,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dictability of depressed mood,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with parenting behaviors were 2.3% ~36.6% in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nd 2.0% ~19.0% in South Korean Women. These predictive variables more affect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han negative behaviors in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nd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than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 South Korean Women. Based on these result,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Women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escrib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Depression, Parenting guilt,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